

2025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 본 전국연합학력평가는 17개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시행되며, 해당 자료는 EBSi에서만 제공됩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②	5	⑤
6	②	7	①	8	⑤	9	③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④	15	②
16	③	17	④	18	②	19	③	20	⑤
21	①	22	②	23	②	24	③	25	①
26	⑤	27	①	28	③	29	①	30	⑤
31	②	32	④	33	③	34	⑤	35	④
36	③	37	④	38	②	39	②	40	④
41	⑤	42	④	43	③	44	①	45	④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청중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고 반응을 확인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산도 구들장논에서 하부 논의 물을 채우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맞다는 반응을 보이며 청중과 상호 작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발표자는 청중의 요청에 따라 발표 내용을 추가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③ 발표자는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지 않다. ④ 발표자는 발표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돋고 있지 않다. ⑤ 발표자는 발표 중간중간에 내용을 요약하여 청중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

2.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논농사에 불리한 청산도의 지형적 특징을 극복하기 위한 청산도 구들장논의 구조적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였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청산도 구들장논의 통수로 위에 얹어진 넓적한 돌과 석축이 이루는 형태가 온돌의 구들장과 닮아서 구들장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 1]을 활용하였다. ② 발표자는 일반적인 논의 지리적인 입지 조건인 농수로를 만들 수 있고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짓을 수 있는 넓은 평야 지대를 제시하기 위해 [자료 2]를 활용하였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을 파악한다.

학생 1은 발표자가 공식 누리집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믿음이 간다고 말하며 발표 내용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3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에서 구들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청산도 구들장논이 계단식 논이고 경사가 있어 대형 농기계를 쓰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며 농사 방법에 특이한 점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이 여러 나라에 있는 계단식 논에 대한 자신의 발표에 활용할 수 있어 유익하다며 발표 내용의 효용성을 근거로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⑤ 학생 2는 일반적인 논에서 대형 농기계를 많이 쓴다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

다. 학생 3은 청산도 구들장논이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 선정되었다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4.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학생 1의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정보에 대해 출처를 요구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여 대화 내용을 생체 인식 정보의 개념에서 생체 인식 정보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학생 2와 학생 3의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작성한 초고에 추가할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 추후 모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대화 참여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생체 인식 정보가 유출될 경우 피해가 크다는 학생 2의 발언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에게 생체 인식 정보에 관한 글을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고 말하며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5. [출제의도] 발화의 양상을 파악한다.

[A]에서 학생 3은 친구들도 생체 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자신의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생체 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의 구분에 관한 내용을 글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는 학생 2의 발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내용을 자신의 주변 상황을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말한 생체 인식 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문이나 음성 정보 등이 생체 인식 정보에 해당된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말한 내용의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생체 인식 정보와 일반적인 생체 정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학생 3이 궁금해하는 점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2는 생체 인식 정보를 암호화하면 유출되더라도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학생 3의 말을 긍정하면서 정보 주체인 이용자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학생 3은 학생 2가 생체 인식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에 동의를 표하면서 생체 인식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할 때 위·변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6.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나)에는 생체 인식 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보관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정보 주체가 아닌 정보 처리자의 노력에 해당된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학생 2가 생체 인식 정보의 다양한 활용을 언급한 내용은 휴대 전화 잠금 해제, 은행 거래로 구체화되어 (나)의 1문단에 반영되었다. ③ (가)에서 학생 3이 생체 인식 정보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언급한 내용은 모 기업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 등이 사용된 사례로 제시되어 (나)의 2문단에 반영되었다. ④ (가)에서 학생 3이 생체 인식 정보가 인증 수단으로 안전한 이유를 언급한 내용은 분실의 위험이 적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나)의 2문단에 반영되었다. ⑤ (가)에서 학생 2가 생체 인식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 주체의 노력을 언급한 내용은 불필요한 생체 인식 정보는 저장된 기기에서 삭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나)의 3문단에 반영되었다.

7. [출제의도] 글쓰기 표현 전략을 사용한다.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생체 인식 정보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생체 인식 정보’라는 표제는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내용이다. 또한 ‘한번 뺏은 말처럼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생체 인식 정보’라는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부제에서 ‘돌다리’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표제에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부제에서 ‘열쇠’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표제에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⑤ 표제에 4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지 않고 부제에서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고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는 □□ 공원 안에 있는 다목적 운동장의 빛과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설명하고 있다. 3문단은 빛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4문단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 운동장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에 대한 대안을 빛과 소음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다목적 운동장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밝아 암막 커튼을 달거나 잠을 잘 때 안대를 사용하느라 답답함을 느끼고 편히 쉴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72 dB은 다목적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를 제시한 것이다.

② 1문단에서 □□ 공원 안에 있는 다목적 운동장은 다른 지역과 달리 24시간 개방해서 각종 운동 모임이 많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구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하지는 않았다.

9. [출제의도]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파악한다.

그은 야간 운동장 운영과 관련된 민원 때문에 운동장과 주거지 사이에 키 큰 나무를 심은 사례를 소개한 신문 기사이다. 키 큰 나무를 심는 것은 빛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음 벽을 설치하는 것보다 미관상 보기 좋아 주민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4문단에서는 소음 자체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부착하여 야간 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휴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을 활용하여 방음 벽 설치가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내용을, 현수막을 부착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로 4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그-1은 소음 크기에 따라 수면의 질 저하, 수면 장애 유발, 집중력의 저하, 청력 장애 유발 등이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음의 정도를 알려 주는 알림판에 들어갈 내용으로 4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② 그-2는 다른 지역의 다목적 운동장 조명탑의 소등 시간이 21시인 곳의 비율이 74%로 가장 높음을 보여 주는 통계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 공원 안에 있는 다목적 운동장 조명탑 소등 시간을 21시로 하자고 주장하는 근거로 3문단을 보강할 수 있다. ④ 그-1은 소음으로 인해 수면의 질 저하, 수면 장애 유발, 집중력의 저하, 청력 장애 유발 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그은 수면에 장애를 받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전문가의 인터뷰이다. 두 자료 모두 빛이나 소음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활용하여 다목적 운동장에서 나오는 빛과 소음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의 사례로 2문단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⑤ 그은 빛이 외부로 퍼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 준다. 그은 야간 운동장

운영 때문에 민원이 급증하자 키 큰 나무를 심어 빛이나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인근 주택으로 퍼지는 빛을 차단하기 위한 대안으로 3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고쳐 쓴다.

<보기>에서는 빛과 소음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신의 건의를 수용해 달라고 했을 뿐, 새로운 해결 방안을 추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다목적 운동장의 시설을 현대화시켜 달라는 내용은, 다목적 운동장의 빛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 내용과 무관하다. 이것이 <보기>에서 삭제되었다. ③ [A]에서는 건의가 수용되었을 때 자신이 저녁에 잘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나, <보기>에서는 인근 주민 모두 편안한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작성하였다. 따라서 건의가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서는 자신의 건의가 수용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드러냈을 뿐, 건의를 받는 독자의 예상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없다. <보기>에서는 자신의 건의가 구청의 예산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으므로 건의를 받는 독자의 예상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 [출제의도]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에서 모두 관형격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관형어를 이룬다. 따라서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가 체언 뒤에 결합하여 이동의 도착점을 나타내는 부사어를 이를 수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표준 발음법에서는 관형격 조사 ‘의’는 [–]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e]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②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는 앞 체언이 유정 체언이면서 존대의 대상일 때 ‘ㅅ’으로 쓰였고, 유정 체언이면서 존대의 대상이 아닐 때 ‘이/의’로 쓰였다. ④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에서 모두, 관형격 조사는 뒤 체언이 앞 체언에 소유되거나 소속됨을 나타내기도 하고 앞 체언이 뒤 체언이 나타내는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등의 여러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⑤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에서 모두, 관형격 조사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관형어를 이루며,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12. [출제의도] 중세 국어 관형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를 이해한다.

느에서 ‘무더미’(무덤 + 의)는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체언 ‘무덤’ 뒤에, 관형격 조사와 형태가 동일한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이때 부사격 조사 ‘의’는 체언 뒤에 결합하여 이동의 도착점을 나타낸다.

[오답풀이] ① 그에서 관형격 조사 ‘의’는 끝음절 모음이 양성 모음 ‘·’인 체언 뒤에 결합하고 있으므로, 관형격 조사 ‘의’가 끝음절 모음이 음성 모음인 체언과 결합하였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느에서 관형격 조사 뒤의 체언은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관형격 조사 ‘ㅅ’이 앞 체언이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르에서 부사격 조사 ‘예’는 단모음 ‘이’로 끝난 체언 뒤에 결합하여 원인을 나타내므로, 부사격 조사 ‘예’가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뒤에 결합하여 시간을 나타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르에서 부사격 조사 ‘의’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부사격 조사 ‘의’가 원인을 나타낸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과 시간 표현을 파악한다.

안긴문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내일’이 사용되

었고, 안은문장의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두 조건이 모두 실현되었다.

[오답풀이] ② 안은문장의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포함되지 않았다. ③ 안긴문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④ 안긴문장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⑤ 안은문장의 서술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포함되지 않았다.

14. [출제의도] 파생어의 특징을 이해한다.

느과 르은 모두 접두사가 결합한 파생어이므로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지 않은 [A]에 해당한다. ㄷ은 형용사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이며, ㅁ은 동사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명사이므로, ㄷ과 ㅁ은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고, 파생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동일하지 않은 [B]에 해당한다. ㄱ은 명사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명사이며, ㄹ은 동사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이므로, ㄱ과 ㄹ은 모두 접사가 어근 뒤에 결합하고 파생어의 품사와 어근의 품사가 동일한 [C]에 해당된다.

15. [출제의도] 음운 변동의 유형을 이해한다.

㉡은 음운의 첨가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음운의 탈락과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오답풀이] ① ㉠은 음운 변동 중 음운의 교체와 축약이 일어나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었다. ③ ㉡은 음운 변동 중 교체만이 일어나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다. ④ ㉢은 음운 변동 중 음운의 교체와 첨가가 일어나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⑤ ㉣은 음운 변동 중 음운의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다.

[16 ~ 21] (인문 주제 통합) (가) 본유 관념에 대한 로크의 비판/(나) 본유 관념에 대한 라이프니츠의 옹호

(가) 본유 관념에 대한 로크의 비판

이 글에서는 로크가 본유 관념을 비판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험론의 대표적 철학자인 로크는 경험론적 방법으로 본유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본유론자들이 대표적인 본유 관념으로 보는 동일률과 모순율에 대해 로크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례를 들어 본유 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했다. 이는 로크가 사례를 들어 본유 관념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② (가)의 4문단에 서술된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인간의 경험이며, 필연적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들 수 있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의 본유 관념 옹호는 자신의 단자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가)에는 본유론자의 주장에 대한 경험론 철학자 로크의 반박이 소개되어 있다. (나)에는 본유 관념을 비판한 로크의 주장에 대한 합리론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반박이 소개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는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로크의 반론이 서술되어 있다. 본유론자들과 로크의 논쟁이 있었다는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는 경험론 철학자 로크의 주장이 서술되어 있다. 로크의 주장과 관련된 후대 철학자의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나)에는 합리론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주장이 서술되어 있다. 라이프니츠와 관련된 후대 철학자의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⑤ (가)에는 본유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로크의 반론이 서술되어 있다. 로크의 주장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서술되어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사실적 진리는 필연성이 없고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이다. 그러므로 사실적 진리는 반드시 참인 명제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로크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례를 들어 본유 관념과 보편적 동의 간의 필연적 관계를 부정했다. 이는 로크가 사례를 들어 본유 관념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다. ② (가)의 4문단에 서술된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지식의 기원은 인간의 경험이며, 필연적 진리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다.

18. [출제의도] 서로 다른 입장 간의 공통점을 이해한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로크는 ‘아이들은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자신의 정신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사례를 들어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보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의 1문단에서 라이프니츠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존재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례로 인해 동일률이나 모순율의 본유적임이 보편적으로 동의된다는 것은 증명될 수 없다고 했다.

[오답풀이]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에게 사실적 진리는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에게 사실적 진리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명제이며, 우연적으로 참인 명제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의 4문단에 서술된 로크의 주장에 따르면, 정신이 개별적이고 특수한 관념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 관념들 중에서 일부 관념들에 대한 추상 작용을 통해 개별 관념들을 일반화하는 관념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은 필연적 진리이므로 거짓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동일률이나 모순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④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이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사실적 진리가 경험에 의해 인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라이프니츠에게 귀납적 일반화는 필연적 진리가 반드시 참임을 확증해 줄 수 없

는 것이다. 또한 라이프니츠는 본유 관념은 경험적으로 주어질 수 없고 이성에 의해 발견되고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라이프니츠라면 보편적인 문법 규칙을 귀납적 일반화에 따른 결과로 볼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본유론자들은 감각적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을 본유 관념으로 보지 않는다. <보기>의 A 이론에 따르면 모국어 문법 규칙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A 이론의 모국어 문법 규칙은 경험에서 비롯된 지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유론자라면 A 이론의 모국어 문법 규칙을 본유적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④ (나)의 1문단에 따르면 라이프니츠는 동일률이나 모순율을 자각한 모든 사람은 이 두 지식이 본유적이라고 동의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으며, 본유 관념을 인식하고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동의한다고 보았다. <보기>에 따르면 B 이론의 보편적인 문법 규칙은 필연적이다. 라이프니츠라면 B 이론의 보편적인 문법 규칙을 이해한 모든 사람의 보편적 동의가 있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21.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밀줄 친 ④의 ‘따르면’은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면’의 의미이다. ‘내부 규정에 따라’에서 ‘따라’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여’의 의미이므로 ④의 ‘따르면’과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풀이] ③ ‘할머니를 따라’의 ‘따라’는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학생회장을 따라’의 ‘따라’는 ‘남아 하는 대로 같이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회복됨에 따라’의 ‘따라’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22~26] (사회) 김형배 외,『민법학강의』

이 글은 소송비용과 공익 소송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소송비용은 크게 재판비용과 당사자비용으로 구분되며,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당사자비용에 포함될 수도 있다. 우리 법에서는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폐소자부담하는 폐소자부담주의를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으며 법원이 이를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 폐소자부담주의는 승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거나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공익 소송을 비롯한 공익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당사자비용에는 소송 서류의 작성료, 당사자나 증인의 출석을 위한 비용, 변호사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이 당사자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소송비용 중에는 재판비용이 있으며, 재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였다. ④ 5문단에서 공익소송은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개선하여 사회적약자나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거나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이라고 하였으며,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승소할 경우 그 이익이 사회전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폐소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법원이 소송비용을 적절하게 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폐소자부담주의는 폐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각자부담주의는 변호사비용을 비롯

한 소송비용을 소송당사자 양측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지, 소송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에 따라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③ 재판비용에 포함되는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한다. 이는 각자부담주의나 폐소자부담주의 모두에 해당된다. ④ 민사소송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다. 각자부담주의라고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⑤ 각자부담주의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변호사비용이 초래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4. [출제의도] 글에 생략된 정보를 추론한다.

재판유상주의는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우리법이 소송의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이유는 폐소자부담주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소송도 남발하지 않을 것이다.

25.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보기>에서 법원은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의 넓은 간격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책임을 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 무과실책임주의는 폐소자의 고의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폐소자에게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라, 소송이 제기된 상황의 책임을 물기 위해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른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A와 교통공사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소송에 임할 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내세우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③ A가 제기한 소송은 교통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소송으로 볼 수 있다. ④ A가 폐소하여 소송비용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A에게 경제적부담이 되어 공익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⑤ 법원이 각자부담주의를 취하였다면 소송당사자인 A와 교통공사 각자가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26.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야기하다’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키다.’의 의미이다.

[오답풀이] ① ‘수용하다’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의 의미이다. ② ‘분담하다’는 ‘나누어서 맡다.’의 의미이다. ③ ‘방어하다’는 ‘상대편의 공격을 막다.’의 의미이다. ④ ‘우회하다’는 ‘곧바로 가지 않고 멀리 돌아가다.’의 의미이다.

[27~30] (과학) 신정수,『친환경 저탄소에너지시스템』

이 글은 열펌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열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운반하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한 장치이다. 열펌프에서는 작동유체인 냉매의 ‘증발-압축-응축-팽창’으로 이루어진 순환공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순환공정에서 전기에너지가 투입되고 저온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투입된 전기에너지원보다 큰 에너지를 방출한다. 열펌프는 열기관의 성능평가 지수인 열효율과는 다른 성적계수라는 성능평가 지수를 사용한다.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저온열원에서 열을 흡수하는 부분인 저온부의 성적계수(COP_c)와 고온열원으로 열을 방출하는 고온부의 성적계수(COP_h)를 사용한다. 이 때 COP_c 와 COP_h 는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가 이에 따라 변한다. 열펌프는 냉방과 난방이 모두 가능하고 폐열을 사용할 수 있어 화석연료고갈에 따른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각광받고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이해한다.

열기관은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받아 일을 수행하고 나머지 열을 저온의 열원으로 방출한다. 열펌프는 저온의 열원에서 받는 열에너지와 압축기에서 사용되는 전기에너지의 합에 해당하는 열에너지를 방출하여 난방에 활용한다. 이에 열기관과 열펌프는 모두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열펌프의 작동유체인 냉매가 순환과정에서 고체의 형태로 변환된다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열펌프는 화석연료고갈에 따른 문제해결에 일조하는 장치로, 성적계수향상을 위해 화석연료사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공장의 폐열은 열펌프가 사용하는 저온의 열원들중 하나라고 2문단에서 서술되어 있다. ⑤ 열역학제1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양은 보존된다. 따라서 열펌프를 통해 나가는 에너지가 열펌프에 유입되는 전체에너지의 합보다 클 수 없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글에서 COP_h 는 COP_c 에 1을 더한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COP_c 는 COP_h 보다 클 수 없다. 따라서 COP_h 는 COP_c 보다 큰 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없다.

[오답풀이] ① 열기관에서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은 일을 수행하는 데 쓰이고 나머지 열은 저온열원으로 방출한다고 하였으므로, 수행한 일은 고온의 열원에서 받은 열의 양보다 크지 않다. ② COP_h 는 COP_c 에 1을 더한 값이라고 하였으므로, COP_h 가 커지면 COP_c 는 함께 커진다. ④ ⑦은 저온으로 방출되는 열로 이해 1보다 작다. ⑤의 COP_h 는 COP_c 에 1을 더한 값으로, 1보다 크다. ⑤ ⑦에서 투입되는 열의 양당방출되는 열의 비는 곧 1에서 ⑦의 값을 뺀 것과 같으므로, 그것이 바뀌면 ⑦의 값도 바뀐다. ⑤에서 투입되는 열의 양에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에너지를 더한 것이 방출하는 열의 양이므로, 투입되는 열의 양당방출되는 열의 비가 바뀌면 ⑤의 값이 바뀐다.

2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⑥는 역전밸브로, ⑦가 냉매흐름의 방향을 바꾸면 증발기와 응축기의 역할이 바뀐다는 것이다. 이때 압축기는 냉매를 압축하는 기능을 하므로 냉매의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② ⑥의 열교환기는 실내에서 열을 방출하여 실내온도를 높인다. ③ 냉매는 팽창밸브를 지나면서 온도와 압력이 낮아진다. ④ 글에 따르면 냉매의 한 사이클은 증발기에 유입되는 것으로 시작하여 순환하고 다시 증발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30. [출제의도] 글의 생략된 전체를 추론한다.

⑦는 열펌프에 공급된 열의 양에 압축기에 투입한 전기에너지의 합이 고온의 열원으로 전달한 양이 된다는 것으로, 에너지는 그 형태가 변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양은 보존된다는 법칙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서는 열펌프의 냉매가 증발-압축-응축-팽창을 거쳐 열을 흡수하고, 압축기에 의해 압축되며, 열을 방출하고 팽창밸브를 지나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올 때 순환사이클을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은 양의에너지를 가져야 한다. 냉매가 흡수한 에너지와 압축기에 투입된 전기에너지를 모두 방출하는 것은 곧 한 사이클이 끝났을 때 처음에 가지고 있던 양의에너지와 같은 양의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① 활용하는 열원의 종류는 ⑦의 전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③ 역전밸브는 냉매의 흐름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뿐 ⑦의 전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④ 냉매의 위치의 높낮이는 열펌프의 작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1~34] (현대소설) 이청준,『파甬』

이 소설은 검사인 석주호가 북호정 노인에게 활을 배우면서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활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다. 활쏘기를 ‘솜씨’로 바라보는 인물은 기술을 자랑하며 과시하거나 이기기 위한 수단이자 흥미의 대상으로 활쏘기를 대한다. 반면 활쏘기를 ‘궁도’로 바라보는 인물은 활쏘기를 남에게 보여 주는 수단이 아닌 자기 수양의 과정으로 여긴다. 이 작품에는 솜씨로 바라보는 태도와 궁도로 바라보는 태도를 넘나들며 활쏘기를 대하는 양면적인 인물도 드러난다. 이를 통해 이 작품은 활쏘기라는 전통적 가치를 대하는 여러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31. [출제의도] 인물에 대해 이해한다.

여인의 활쏘기 시범 이후 노인이 저녁을 먹지 않고 낮은 신음 소리를 낸다거나, 여인이 어두운 부엌에 쭈그려 앉아 있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소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는 모습을 보인다.

[오답풀이] ① 석주호 일행이 활쏘기 시범을 보이라 강청했을 때, 노인은 마지못해 새벽 시간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여인은 석양이 질 무렵에 활쏘기 시범을 보였다. ③ 석주호가 노인에게 활을 배우기 위해 다시 북호정에 찾아왔을 때, 노인은 석주호가 사용할 활을 골라 놓지 않고 있었다. ④ 석주호 일행은 노인이 활 만들기와 활쏘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⑤ 여인의 활쏘기 시범 이후 석주호와 석주호 일행은 북호정을 내려가면서 모두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A]와 [B]는 석주호라는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내용을 서술하여 석주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B]는 시간의 순서를 바꾼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며,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도 나타나지 않는다. ③ [A]는 인물의 생각을 드러낼 뿐 행동을 실감나게 묘사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이해한다.

석주호가 엄숙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여인의 활쏘기 시범을 강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노인을 돋기 위한 행동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석주호가 물건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게 나을 법했다고 생각한 것에서 내력이 있는 활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여인의 활쏘기 시범 이후 다시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노인의 모습에 대해, 석주호는 그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석주호가 승부를 가르기 위한 수단으로 활쏘기를 대하면서 승패의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활을 쏠 때는 궁대를 매고 쏘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 노인이 활쏘기를 자기 수양의 과정인 궁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석주호 일행이 노인에게 여인의 활 솜씨를 구경하자고 강청하는 모습에서 석주호 일행이 활쏘기를 대상화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38] (고전 소설) 작자 미상, 「금환기봉」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조선 시대 국문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여성인 주인공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며 뛰어난 업적을 달성하는 영웅적 모습과 남자 주인공과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혼인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다. 주인공 장선빙은 과거에 응시하려 가던 김희경과 객잔에서 우연히 만나 서로 장래를 약속하지만 각자의 사

정으로 헤어진다. 이별 후 고난이 닥치자 장선빙은 남자의 옷을 입고 자신의 성별을 숨기게 된다. 이영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장선빙은 과거 시험을 보러간다. 과거에 급제한 장선빙은 전장에 나가 공을 세우기도 하며 높은 지위에 오르지만, 자신이 부마로 간택되자 왕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임금을 속인 죄를 청하게 된다. 하지만 임금은 장선빙에게 태학사의 지위를 유지시키고, 김희경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장선빙과 김희경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다 하늘의 부름에 일시에 승천하게 된다.

3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장선빙은 태학사의 지위를 유지시키겠다는 임금의 답을 받아 보고 황공한 마음을 가지고 이를 사양하지만, 결국 태학사의 관을 받는다. 태학사의 관을 받은 장선빙은 집으로 돌아와 사당으로 가서 남자에서 다시 여자로 돌아가리라는 뜻을 고한 뒤에 여자의 모습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게 된다.

[오답풀이] ① 임금은 장선빙을 신하로 얻은 후 군신의 의와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고 이야기하며 장선빙을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할 정도로 아끼고 있다. 부자의 정을 겸하였다는 테에서 그를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임금은 장선빙과 김희경의 모습을 직접 본 후 옥을 열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 없다며 그 둘을 모두 쓰겠다고 신하들에게 말한다. 임금의 말에 신하들은 국가의 큰 행운이라며 어찌 뜻을 거스르겠냐고 대답하며 이를 따르고 있다. ③ 김희경은 임금이 어질고 밝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임금이 장선빙과 자신의 약속을 알게 된 이상 사정을 해아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신하들은 김희경과 장선빙의 두 글의 문체가 모두 찬란하고 주제가 뛰어나기에 우열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최후는 둘 모두를 불러 임금 앞에서 비교한 후 결정하자고 아뢰었다.

36.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장선빙은 임금이 자신을 사위로 삼으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체가 여성이라는 것을 밝히며 죄를 고하는 표를 지어 임금에게 올린다. 그 표를 본 임금은 장선빙에게 죄가 없다고 두둔하며 장선빙이 벼슬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것에 슬퍼한다. 한편 김희경의 아버지 김정은 김희경에게 장선빙이 작성한 표의 내용을 전해 듣고 장선빙의 내력에 대해 알게 된 후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선빙을 기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인 김희경에게 이미 부인이 있고 명월 공주와 혼인을 약속했기 때문에 장선빙과 김희경이 혼인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는 우려를 드러낸다.

[오답풀이] ① 설량은 장선빙의 시비로 슬픔을 금치 못하고 우는 그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선빙이 작성한 표를 보고 장선빙에게 빙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장선빙이 누명을 썼다고 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장선빙은 임금의 명을 수락할 수 없는 이유와 자신의 내력을 밝히기 위해 표를 작성하였다. ④ 임금이 옥란과 명월 공주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표를 작성하기 전에도 임금이 사위로 삼기를 원할 정도로 그 둘의 관계는 좋았다고 볼 수 있다.

37. [출제의도] 인물의 태도와 심리를 이해한다.

[A]에서 김희경은 과거 시험장에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장수정이 호명되자 자신이 예전에 장자영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린다. 자신과 혼인을 약속했던 장선빙이 말했던 사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된다. [B]에서 김희경은 장수정이라고 알고 있던 인물이 사실은 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예

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장선빙이라는 사실을 듣고 어찌할 줄 모르고 넋이 나간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김희경이 과거에 장자영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을 떠올리고 있다. [B]에서 미래의 일을 예상하는 부분은 없다. ② [A]에서 장자영에게 아들이 있던 것인지, 동명이인인지, 장선빙이 자신을 속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B]에서 타인의 허물을 지적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A]는 김희경이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부분이 없다. ⑤ [A]에서 타인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B]에서 자신의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3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장선빙은 임금에게 자신의 성별을 속인 죄를 청하며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여성에게 강요되는 사회적 관습에 얹매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선빙이 혼약의 뜻을 밝힌 것은 장선빙이 이룬 성취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① 남복을 입고 과거에 참여한 장선빙은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 주고 이름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과거에 참여할 것을 결심한다. 여성이기에 자신에게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과거 시험에 성별을 속이고 참여한 모습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장선빙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장선빙은 무인으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공을 세웠으나, 자신의 성별이 밝혀지자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지위라는 이유로 그 지위를 잃게 된다. 자신의 성별을 알리고 자신의 지위를 거두어 갈 것을 스스로 표의 내용에 담아 올리고, 임금이 병부 상서의 지위를 거두어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장선빙의 성취가 일부 환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장선빙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김희경의 아버지 김정은 장선빙을 기특하게 여기고 있다.

[39~41] (현대시) (가) 오장환, 「성씨보-오래인 관습-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나) 김수영, 「미농인찰지」

(가) 오장환, 「성씨보-오래인 관습-그것은 전통을 말함이다.」

이 시의 제목인 ‘성씨보’는 족보를 말한다. 화자는 자신의 조상이 해주로 이사 온 청나라 사람이라는 것 정도를 알려 주는 족보로는 자신이 오씨라는 것은 알아도 어째서 오가인지는 알 수 없다. 가문의 혈통 관계가 거짓 없이 기록되어야 할 족보가 창작과 매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화자는 이런 족보로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성씨가,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다며 족보를 불신한다. 이어서 화자는 자신을 ‘소라속’에 빗대며 족보로 상징되는 인습이 자신에게 무겁게 지워져 있음을 드러내지만,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을 잊기 위해서는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고 역설하며 당대의 허위의식을 비판한다.

(나) 김수영, 「미농인찰지」

이 시는 바다 근처에 사는 매부의 환대를 받고 돌아온 화자가 담례차 매부에게 보낼 감사 편지를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화자는 편지를 쓰기 위해 식모에게 고급 타이프 용지인 ‘미농인찰지’를 사 오라고 했으나 식모가 사 온 것은 값싼 ‘밀용인찰지’였다. 화자가 사는 동네에는 ‘미농인찰지’를 파는 곳이 없었던 듯하다. 매부와 비교되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값싼 종이로 드러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 데서 화자는 자신의 속물성을 확인하면서 편지 쓰기를 그친다. 이어 값싼 종이를 사 올 수밖에 없던 식모를 단호하게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화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한다.

39.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나)에서 화자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인 '매부'에게 '없다우', '못 쓰겠소' 등과 같이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가)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는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은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는 의문의 형식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나)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행위를 통해 화자는 '복선공사'에 동원된 연약한 인부들의 모습을 참경(慘景), 끔찍하고 비참한 광경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돌아오는 길에' '차창에서 내다본' 행위가 화자가 물질적인 성취에서 멀어지며 느낀 좌절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맥락을 고려할 때, '성씨보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에서 화자가 족보라는 인습을 부정하고 인습에 근거한 이기적 욕망을 거부하려는 모습을 알 수 있다. (나)의 맥락을 고려할 때, 식모는 '밀용인찰지'를 사울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식모를 부르는 소리'가 '미안할 정도로' '단호해졌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밀용인찰지를 사' 올 수밖에 없는 것에서 화자는 매부에게 감사 인사조차 전하지 못한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45] (갈래 복합) (가) 정훈, 「수남방옹가」/(나) 신흠, 「천정기」

(가) 정훈, 「수남방옹가」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인인 정훈(1563~1640)이 창작한 가사로서,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작품에서 화자는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은 생활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봄에서 겨울까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양정가」, 정철의 「성산별곡」과 같은,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한국 가사 문학의 전통과 그 맥이 달라 있다. 제목인 「수남방옹가」는 '수남방옹의 노래'라는 뜻인데 '수남방옹'은 작가인 정훈의 호(號)이다.

(나) 신흠, 「천정기」

이 작품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인이며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신흠이 춘천에 유배된 칫해(1617년)에 지은 글이다. 제목인 「천정기」에서 「천정」(穿井)은 '우물을 파다'라는 뜻이며 '기'(記)는 한문으로 쓰인 고전 수필의 한 갈래이다. 이 작품은 글쓴이가 새로 판 우물을 화제로 삼아 글쓴이와 손님이 나누는 대화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두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대비를 이룬다. 손님은 세상에 널리 쓰이는 것, 즉 출세의 삶을 군자의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글쓴이는 세상에 쓰이는 것은 하늘에 달린 문제이지만 내면의 도(道)와 덕(德)을 갖추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를 수 있는 일이므로, 도와 덕을 닦는 삶을 군자의 바람직한 삶으로 여겨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자세를 드러낸다. 글쓴이와 손님의 상이한 견해가 서로 대비되면서 손님이 드러내는 출세 지향의 삶의 태도는 반성의 대상이 되고, 글쓴이의 말을 통해 드러나는 바 내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는 부각이 된다. 이 작품이 전달하려는 주제 의식은 작품 속 글쓴이의 말을 통해 드러난다.

4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는 봄에서 겨울까지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며 각 계절의 자연 풍경이 감각적 시어를 통해 묘사된다. 가령 '금사는 벼들 그림자요 설색은 매화로다',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는 소리거늘'과 같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봄의 자연 경관을 묘사한 것이 그 예이다. (나)는 우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바람직한 삶과 삶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에 관한 교훈을 우물의 특성으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므로 (가)는 자연을 감각적으로 묘사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나)는 사물의 특성에서 유추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삶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는 자연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바람직한 삶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가)와 (나)는 모두 부정적 세태에 대한 비판과는 거리가 멀다. ⑤ (가)에 '물고기와 새도 뜻을 알아 다 의심 아니하네'와 같은 구절, (나)에 '우물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와 같은 구절에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러한 표현이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쓰인 것은 아니다.

43. [출제의도] 구절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②은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계절 내내 즐길 것이 많아 자연에 묻혀 사는 자신은 그것을 즐기느라 쉴 겨를이 없다는 뜻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드러낸 표현이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②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긴 후에 밭에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자연도 즐기고 생계를 위한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④ ②은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글쓴이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손님'이 해 준 말이다. '임금이 명철하고 복을 받게 되면'이라고 상황을 가정하여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면 글쓴이도 장차 널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앞날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기 위해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기이한 사람이나 귀양살이 온 사람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다는 말은 앞선 '여러 가게와 여러 사람들이 쓰도록 자리 잡혀 있'라는 말과 대구를 이룬다. 후자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어 널리 쓰임을 나타내고, 전자는 외진 곳에 있어 널리 쓰이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쓰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②, 대상이 위치한 장소의 특성 때문에 그 쓰임에 제약이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44.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한다.

(가)의 화자는 ②를 '경요굴'에 빗대어 겨울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표현하고, 그로부터 느끼는 시홍에 대해 노래한다. 이로부터 ②가 화자에게 심미적 완상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에서 ⑥는 '여러 가게와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사거리 큰길'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을 나타낸다. 따라서 ②는 심미적 완상의 대상이 되는 장소이고, ⑥는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②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공간의 일부이다.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②가 화자에게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장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⑥는 글쓴이의 처지를 나타내기 위해 제시된 장소이나 글쓴이의 내적 갈등과는 무관하다. ④ ②는 화자가 사는 자연 공간이

고, ⑥는 글쓴이가 사는 외진 공간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는 인물이고, (나)의 글쓴이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옳다 여기는 삶을 사는 정신이 높은 인물이어서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 모두 고독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②와 ⑥가 그곳에 처한 이에게 고독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나)의 주된 특징은 우물이라는 사물의 특성에서 유추해 낸 인간 삶의 이야기가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서 우물은 군자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을, 우물물은 군자가 내면에 갖춰야 할 덕과 도를 나타낸다. 아울러 우물이 사람들에게 널리 쓰이는 것은 군자가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위해 일하는 상황을, 우물이 감추어져 쓰이지 못하는 것은 군자가 세상에 쓰이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나)에서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이 없고'라는 말은 우물의 특성과 관련한 표현이다. 우물은 많은 사람들이 길어 가도 마르지 않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비워지지 않는다. (나)의 글쓴이는 이러한 우물의 특성으로부터 군자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를 유추하는데, 그것은 출세하여 세상에 널리 쓰여도 내면의 덕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 쓰이지 못해 은거할 때도 내면의 덕성을 지니고 사는 삶의 자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의 '채워지지 아니할 까닭이 없고'라는 말은, 군자는 모름지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내면의 덕과 도를 갖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 말에서 삶에 대한 글쓴이의 좌절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슴속이 상쾌하니', '나밖에 뉘 아는고', '나 혼자 맡아 있다'는 모두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가)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쓰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화자의 만족감이 부각된다. ②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오'는 '손님'이 글쓴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 한 말로 때를 만나면 글쓴이도 세상에 널리 쓰이는 삶, 즉 출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의 바탕에는 세상에 쓰이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생각이 놓여 있다. 이 말에 대해 글쓴이는 '우물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라고 대답하는데 이 말에는 우물이 사람들에게 쓰이든 쓰이지 않든 그 안에 늘 우물물이 있는 것처럼 자신도 세상에 쓰이든 쓰이지 않든 군자로서 갖춰야 할 덕과 도를 지니며 살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리고 글쓴이의 그와 같은 말의 바탕에는 세상에 쓰이고 쓰이지 않고는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③ '아무도 길어 가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비워 있을 까닭이 없지요'라는 말은 세상에 쓰이지 않아도, 즉 벼슬길에 오르지 않아도 군자로서 갖춰야 할 내면의 덕과 도를 지니면서 살겠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 표현이다. ⑤ (가)의 '여기서 더 할 런가'라는 표현은 화자가 자연의 삶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공자의 제자였던 증점이 누렸던 삶의 즐거움보다 크다는 뜻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만족감을 나타낸다. (나)의 '실로 비슷하다'라는 말은 '손님'이 글쓴이에게 한 것으로, 덕이 있음에도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글쓴이의 처지를 좋은 우물이 감추어져 쓰이지 못하는 상황에 빗댄 표현이다. 이러한 우물의 상황에 빗대어진 글쓴이의 처지에 대해 '손님'은 애처롭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의 감정을 보인다. 그러므로 (가)의 '여기서 더 할 런가'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화자 자신의 긍정적 태도를, (나)의 '실로 비슷하다'에서 글쓴이의 현재 삶에 대한 '손님'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